

(1)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동료 정치호 직원의 사망 의혹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맑고 순수했던 동료는 죽음에 이르고, 거짓과 위선 더 나아가 책임을 동료나 아랫사람한테 전가해버리는 타락한 간부들은 호가호위하는 현실을 보면서 밤잠을 뒤틀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댓글 수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위장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곳이 심리전단 외에는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아닙니다.

2014.3 검찰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대공수사국 해당팀(수사3처입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언론 보도에는 “2014.3.10. 오후 5시부터 담당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이 대공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공수사팀이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된 전산자료, 대공수사관련 기록 등을 7시간 넘게 진행하여 확보했다”라고 보도되었지요.

그러면, 허위 서류 제출과 언론보도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에도 ‘유우성 증거조작사건’과 같이 유우성 담당팀(처장 3급 이재윤)에서 기획 → 상부 결재 → 시설 설치 → 검찰 압수수색팀 안내 → 자축연 순으로 끝났습니다.

2014.3 당시, 유우성 사건 담당관은 5급 김00(현재 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 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윤(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그리고 직속간부(단장 2급 채[국장 1급 이[가 수사 현안 회의를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였습니다.

(2)

나머지 2분 과장님은 그냥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형편이었고요.

그 논의에서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없는 서류만 제출케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일부만 공개시켜 마치 그 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4급 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시 전문(對中 전문하달) 등을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00 직원이 기안하였고, 4급 권세영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재윤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재윤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사무실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고요.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이었지요. 그냥 뚝딱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팩트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먼저, 당시 수사3처 조직표를 확보하여 무작위 몇 명만 선택하여 확인해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김 과장한테 바로 여쭤보세요. 김과장이 원래 수사국에서 알아주는 보고서 작성 기획통인데 마침 유우성 사건 담당자라서 사건을 총괄 기획하면서 권세영 과장이나 이재윤 처장의 지시를 보고서로 작성하신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루도 마음편히 쉰 날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찰실 수집관중에서 그 당시에 대공수사국을 담당한 직원을 찾아 물어보세요. 상세히 알고 있을겁니다. 수집관이 이러한 동향을 입수하여 감찰처장을 거쳐 감찰실장까지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순서입니다. 만약, 수집관이 몰랐다고 말한다면 명청이 아니면 천재 아니겠습니까?

(3)

여하튼, 그 당시에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영 과장이 원래 독고다이 스타일이라서 누구 말을 듣거나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의를 마치고 나오면 복도에서 항상 티격태격하였습니다. 오직 자기의 일신 안위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당시 검찰 조사기간에도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나를 건들면 압수수색때 위장사무실 운영한 것을 검찰이나 언론에 다 까발린다. 알아서 해라”고 공공연하게 위력했었으니, 듣는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유우성 사건 처리가 잘되었다고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잘 못되었지요. 다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밝혀지리라 봅니다.

대공수사를 하다보면, 협의와 정황은 있으나 결정적 물증 부족으로 풀어주거나 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떨어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요. 사람 구속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 실정이 어떠하든 간에 북경 영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맥으로 유우성의 북한 출입경자료, 중국내 통화내역 등을 은밀 입수하는데 앞장서고 유우성 수사에서 조사실 책임자였던 권세영 과장이 사건이 깨어지자 김보현 과장과 함께 후배인 심양 이인철 영사를 조종해서 여러 문건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중국 협조 라를 통해 입수한 북한 출입경자료는 사이드로 입수한 것이고, 또 그러한 자료를 믿고 수사한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입증하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유우성 수사 때 민변에서 면회를 온다고 연락받고서는 조사실 후배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곳으로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는 무책임한 간부였고, 수사기간중에도 잘못할 여러 돌출행동으로 유우성 수사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물어보세요. 아마 험한 말들을 할 겁니다.

지금 차가운 감방에서 고생하시는 김보현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을 담당하는 수사3처에서 김보현 과장과 권세영 과장이 중국 출장을 전담하거나 현지 협조자들을 관리하면서 여러 위세를 보였지요.

이런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권세영 과장은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나자 당시 원장님은 국정원 직원을 대표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영웅시하였지요. 그런데 막상 주위 동료, 선배들한테는 조직에서 자신을 해임시키면 여러 불법사항을 폭로하여 동반 자폭하겠다고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주효해서인지 멀리 제주도로 전출까지 가시고.....

이재윤 처장도 비슷합니다. 유우성 사건의 해당과장으로 수사가 끝난 후 간첩죄로 의율하여 송치했다는 영광으로 3급 승진하셨으나 나중에 증거조작에 연루되었다면 그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계셔야 할텐데 그 책임을 과장이나 부하직원들한테 돌렸지요. 그 당시 사무실에 정치호 직원과 같은 변호사 출신이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자 모든 것을 법률 자문한 변호사 한테 돌려 세우니까 그 변호사가 조직에 회의를 갖고 사직했었지요. 아무리 자기가 살겠다고 했겠지만 참으로 얼굴이 뚜껍다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오리지날 수사관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2급 죄 단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온다 하니까 행정팀으로 허둥지둥 내려가서 자신이 예산 결재한 서류는 몽땅 없애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비웃음을 사신 분이지요. 애처롭습니다. 조직 생활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면 아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어 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설령 일어 났더라도 의연하게 차분히 바라보면서 직원들을 다독여야 할 간부분들이 오히려.....

1급 이 국장도 자신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모른척 하면서 입을 딱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처신이라 봅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대공수사국 직원들이 잘알고 있으나, 조직개편한다고 하여 혹시 조직에 누가 될까봐 쑤셔하고는 있으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여러 망설임이 있었으나, 최근 일어난 동료 정치호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위의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대공수사국의 전통과 명예를 일순간에 엎어버리고도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번 적폐청산 TF 조사에서도 자신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끊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실직고 합니다.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 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 12

조일수 드림

위의 내용을 검찰에도 보냈습니다. 편견 없는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